

"3퇴" 와 평안

제 115 기

《9 평공산당》 책은 진실하고 정확하게 중공의 사악한 본질을 폭로하였다. 2013 년 4 월 10 일까지 이미 1억 3천 6백 9만 중국민중이 해외 대기원 인터넷 사이트에 중공의 당, 단, 대에서의 탈출을 성명하였다.

1억 3천만을 넘는 대륙민중이 "3퇴"하여 자신을 구하다

【명혜망】 2004 년 연말 《9 평공산당》이 발표된 후부터 전세계에서 중국인의 “3 퇴” (중공의 당, 단, 대에서의 탈출을 간략하여 3 퇴라 부름) 열조를 일으켰다. 탈당해 스스로 구원받는 것이 대륙민중의 큰 대사로 되어가고 있다.

량회기간 관원들이 지혜롭게 “3퇴” 하다

3 월분 중공의 량회기간 어느 날 아침 (중국의 저녁 시간) 캐나다 자원봉사자 왕 녀사는 전화벨이 두 번 울린 후 전화기를 들었으나 상대방은 전화기를 놓았다.

이것은 바다 건너 북경에서 걸려 온 전화인데 왕녀사는 다시 전화를 걸었다. 전화를 받는 사람은 목소리에 약간 위엄이 있는 중년 남성이었다. “여기는 전 세계 탈당직통전화입니다. 모두들 3 퇴하여 평안을 얻는데 당신은 당원 이신가요?” 그러자 그 남성은 다그쳐: “여기는 량회인데 이 화제가 너무 민감해요! 너무 민감해요!” 라고 말했다.

왕녀사는 알아듣고: “이는 간단하니 민감한 말을 당신은 하지 말고 내가 하겠어요.”라고 말했다. 그러자 상대방은 과연 말이 없었다.

“당신은 체제내의 사람이니 당의 부패와 사악함을 더욱 똑똑히 알 수 있어요. 이러한 당을 하늘이 멸하지 않겠어요? 군자는 위험한 담벽 아래 서있지 않으니 하늘의 뜻에 따라 3 퇴 성명을 하세요!” 상대방이 좀 우려하는 것이 느껴져 왕 녀사는 말했다: “긴장하지 마세요. 신은 사람의 마음을 보니 내가 ‘향선(向善)’이라는 가명으로 당신의 탈당을 도와 드리겠으니 당신은 난에 봉착하여



도 화가 복으로 변화될 것이예요.” 이때 이 남성은 연속: “좋아요! 감사해요! 감사해요!” 라고 말했다.

왕녀사는 매우 감개무량해: 이 몇 년간 끊임없이 진상을 알리는 것을 통하여 사람 마음은 이미 깨어났어요. “량회 관원들도 주동적으로 전화를 걸어 지혜롭게 탈당하니 사당의 뿌리는 모두 뽑히기 시작했어요!”

당의 괴뢰군이 되려 하지 않는 공군장병

공군 모 부대 대령 리룡 (가명) 과 비행원 왕비 (가명) 는 탈당전화로 “3 퇴”를 성명했다. 그들은 왕 녀사에게: 지금 국내는 전부 엉망이 되어 공산당은 이미 나쁘기 그지없어 희망이 없어요! 잘 못하면 전쟁이 날 수 있는데 우리 모두는 그것을 위해 목숨을 바치지 않겠어요. 국내에서는 전혀 희망을 볼 수 없으니 우리는 비행기를 몰고 봉기하려 해요. 그들은 자신의 실명과 전화번호를 탈당 자원봉사자에게 남기면서 “당신들은 가장 믿음직하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이예요!”

한 갈래 희망의 길을 선택

어느 날 저녁 장 녀사는 산동 모 대학교 기숙사에서 걸려온 전화를 받았는데 학생 8 명이 둘러앉아 들었는데 매우 많은 일례를 들면 천안문 분신자살사건의 진상 등 문제를 물었다. 장 녀사는 그들에게: “이민 전 우리 집도 북경에 있었고 천안문과 40 분정도 떨어져 있었어요. 나는 늘 천안문에 갔어도 경찰이 소화기와 멀화탄자를 메고 순찰하는 것을 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당신들이 텔레비전에서 연출된 ‘분신자살’에서 보다싶이 경찰이 1 분 내에 3 개의 소화기로 류춘령에게 분사하고 멀화탄자로 불을 끄는데……이것은 연출한 것이 아닌가요?”

“사실 중공이 파룬궁을 박해한 것은 완전히 거짓말 기초상에서 건립된 것이예요. 그런 거짓말은 모두 매우 졸렬하며 기편국중도 매우 저급적인 허점들이 많아요. 여러분처럼 지력이 높은 사람들도 속아 넘어갔는데 이는 여러분이 너무 단순하고 의심한 적이 없으며 한 정당한 대국 정부가 오히려 선량하고 무고한 백성을 박해하기 위해 전 세계에 향해 새빨간 거짓말을 했다는 것을 의심도 상상도 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진상을 알게 된 후 대학생들은 차례로 “3 퇴”를 했으며 어떤 사람은 또 파룬궁을 수련하겠다고 하면서 어떤 사람은 수화기에 대고 “파룬따파 만세!”를 외쳤다

기쁜 변화

《9 평공산당》 발표 초기 많은 사람들은 “당”과 “나라”를 구분하지 못했고 (중공은 중국이 아니고 애국은 애당이 아니다) 사악한 당의 죄악을 폭로하는데 대해

(제 2 면으로)

죽음을 기다리던 장암 환자가 새 생명을 얻었다

【명혜망·산둥에서 온 소식】나는 산둥 청도 사람이며 마누라는 여러해동안 파룬궁을 수련하였다. 나는 수련하지 않지만 리치가 있다고 여겼다.

2011 년, 나는 외지에서 일을 하면서 경상적으로 배가 아파 여러 의사선생을 보였고 약도 적지 않게 먹었으나 배가 아픈 차수는 갈수록 더욱 빈번해졌다. 후에 지탱하기 어렵게 되자 하던 일을 접고 집으로 돌아갔다. 집에서 또 여러 의사들에게 보였고 약도 적지 않게 먹었으나 여전히 호전되지 않았다.

아내는 나를 위방(潍坊) 종양 병원에 데려갔어도 병을 검사해 내지 못했고 배는 여전히 아팠다. 음력 11 월 7 일, 나를 또 청도병원에 보냈으나 여전히 병원인을 찾지 못하였다. 이때 나는 몹시 화가 나서 속으로 하루종일 현대의학과 과학기술이 여하하여하게 발달하였다고 불어대지만 있는 병도 검사해내지 못하니 차라리 집에 돌아가 아내한테서 파룬궁을 배우기 보다 못하다고 생각했다. 의사선생도 가족과 말했다 : 안되면 수술로 절개해봅시다. 가족은 어디에 이렇게 병을 보는 것이 있는가고 생각했다. 하지만 가족은 그래도 온화하게 말했다 : 먼저 집에 돌아가 한동안 료양하고서 다시 보겠어요. 집에 돌아와 하루 밤을 지냈는데 배는 아파서 참을 수 없었다. 11 월 8 일 바로 또 병원에 가서 수술로 절개해보았더니 암 종양은 창자 위에 포도알처럼 많아 수술할 수 없어 다시 봉합하였다. 아내는 나를 위안해주면서 말했다 : 당신에게 수술을 하였으니 집에 돌아가 몸조리하면 돼요.

돌아온 후 나는 날마다 《전법륜》(파룬따파 주요서적 중의 하나이다) 책을 보았으며 얼마만큼 볼수 있으면 얼마만큼 보았으며 날마다 견지하여 보면서 아내와 함께 파룬궁을 수련하려는 결심을



그림: 2013 년 3 월 16 일부터 18 일, 한해 한번인 아일랜드 춘기 “심신령명절” 은 예전과 마찬가지로 아일랜드 황가협회 전시청에서 열렸다. 아일랜드 파룬따파 수련생들은 왕년과 마찬가지로 전람에 참가하였다. 대법의 상서로운과 우아함을 나타낸 전시대와 연출은 민중의 호평 및 열렬한 환영을 받았다. 3 일간 백여명 사람들이 이름과 연계 방식을 남기면서 파룬따파를 배우려 한다고 표했다. 파룬따파는 오늘에 이르기까지 이미 세계 백여개 나라와 지역에 널리 전해지고 있다.

내렸다. 기적은 나타났다. 나의 신체는 정말로 하루하루 좋아지기 시작했다. 아내는 갈수록 좋아지는 나의 신체를 보고서 사실 정황을 나에게 알려주었다. 나는 문득 크게 깨달았다. 나는 원래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대법 사부님께서 나를 구해주셨다. 나는 감격된 마음을 말로 표달할 수 없었다.

여기에서 나는 전세계 사람들에게 말한다 : 파룬따파는 좋다! 다시 한번 대법 사부님께 감사드립니다. 나는 이미 정식으로 파룬따파 수련에 들어섰다.

파룬궁은 또 파룬따파라고 하며 1992 년 5 월에 리홍지 선생이 전한 불가상승의 수련대법이며 “쩐싼 런” 을 기본지도로 하며 병을 제거하고 신체를 건강히 하는 효과가 현저하다. 1 억이 되는 사람들의 수련실천이 증명하다싶이 파룬따파는 진정으로 수련하는 사람을 높은 차원으로 이끄는 동시에 사회온정, 사람들의 신체소질과 도덕수준을 제고함에 역시 헤아릴 수 없는 정면작용을 일으켰다◇

(1 면의 계속)

저촉하였다. 많은 사람들은 진상을 들으려 하지 않았고 이것은 자신과 관련이 없다고 여기면서 자신이 박해받지 않고 돈을 많이 벌고 잘 살기만 하면 된다고 여겼다.

최근 중국인들은 유독식품을 먹고 “돼지사체를 담갔던 물”을 마시며 안개먼지 공기를 호흡하면서 중공한테 수십년간 철두철미하게 속했다는 사실을 인식하였고 그들은 잠에서 방금 깨어난 느낌이 들었으며 더 이상 “돈만 있으면 잘 살수 있다”는 공산당의 거짓말을 믿지 않고 인생의 의의와 진상에 대해 탐색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파룬궁이 매 한 사람의 운명과 긴밀히 관련되어 있고 회피할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하고 파룬궁에 대해 료해하기를 열렬히 희망하였으며 적극적으로 “3 퇴”를 성명하고 진상을 전파하는 것을 열정적으로 도와주는 것으로 자신에게 아름다운 미래를 선택하고 있다.◇

"천안문 분신자살"---중공이 만들어낸 거짓 안건이다



□분신자살 화면의 느린 동작을 다시보자: 류춘령은 초록색 군대외투를 입은 건장한 군대경찰 특무가 갑자기 긴 물체로 뒷 머리를 호되게 격타하여 류춘령은 땅에 넘어졌는데 그의 죽음을 초래한 것이다.

2001년 1월 23일 천안문 분신자살 비참한 안건은 중외를 놀래웠다. 이어서 분신자살 위조안건에서 조작한 여러 곳들이 폭로됨에 따라 중공이 연출한 분신자살은 민중의 증오심을 선동하기 위하여 파룬궁을 박해하기 위하여 만들어 낸 구실이라는 것이 밝혀졌다.

2001년 2월 4일 미국 《워싱턴 포스트신문》에서는 《분신자살의 불길은 중국의 검은 내막을 비추었다》는 보도를 발표하였다. 포스트신문 기자는 친히 분신자살자 중의 하나인 류춘령의 고향 하남 개봉시에 가서 실지조사를 하였는데 류춘영은 술집 기생(三陪)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이자 파룬궁 수련생이 아니었다. 중앙텔레비전 특상의 느린 화면을 통하여 볼 수 있는 바 류춘영은 경찰이 무거운 물체로 격타하여 죽었다. (그림 1).

중앙텔레비전 화면에서 여자아이 류사영은 기관절개 수술을 하였는데 도리어 목소리가 쉿쉿하게 기자의 취재를 접수하고 또한 노래도 부르니 “의학기적”을 창조하였다!



화상환자는 감염을 엄밀히 방지해야 하는데 기자는 도리어 가까운 거리에서 취재하면서 격리옷도 입지 않고 또한 마스크도 끼지 않았다 (그림 2). “분신자살자” 왕진동의 두 다리사이에 있는 휘발유를 담은 비닐음료 병사리는 불길속에서 오히려 전혀 손상되지 않았고 머리카락은 가장 쉽게 불에 타지만 화면중 왕진동의 머리카락은 전혀 손상받지 않았으며 왕진동의 뒤에 있는 경찰은 멀화탄자를 들고서 왕진동이 이른바 “파룬궁 구호”를 외치고 나서야 비로서 멀화탄자를 그의 머리에 썩웠다 (그림 3). 거짓을 꾸민 곳은 또: 경찰은 본래 멀화기를 메고 순라하지 않는다. 이른바 분신자살의 당일, 천안문 경찰은 몇분사이에 두 대의 경찰 차량에서 20여개의 멀화기와 멀화탄자로 이 “돌발”사건을 처리했다. 대변인 매체기자는 더욱 일찍이 “돌발”사건을 알았으며 그들은 만단의 준비를 하고서 가까운 거리 화면, 먼 거리 화면과 특별화면(特写)을 찍었다. 먼거리 화면을



모든 천안문 광장을 찍을 수 있는 대회당 위에 있는 감시기로 찍었다고 해석했으나 감시기는 고정되어 있다. 하지만 분신자살 화면의 카메라는 사건의 발전을 따라 바싹 이동하였다. 마이크로 우렁찬 외침 소리를 녹음할 수 있고 촬영사는 여러가지 커다란 특별화면을 찍을 수 있고 심지어 어린 아이가 어머니를 부르는 화면까지 놓치지 않고 찍었다. 분명한 것은 이 “분신자살”은 중공이 연출하고 찍은 증오를 선동하는 가짜 극이다.◇

젊은나이에 급사한 원인은 중공때문이다

【명혜망】명혜망에서 폭로한 파룬궁을 박해하여 악보를 받은 안건은 2 만 여건이 된다. 이런 하늘의 악보를 받은 사람 대다수는 모두 중년사람들이다.

감숙성 금창시 공안국 부국장 오광현(吴广贤)이 로동교양위원회 주임직을 맡고 있는 기간에 금창의 여러명 파룬궁 수련생들은 불법로교를 당했다. 2010년 3월 10일 저녁 오광현은 공안국 총계에서 돌발성 뇌출혈로 땅에 쓰러졌다. 3월 13일에 세상을 떠났는데 죽을 때 53살이었다.

금창시 북경로 파출소 경찰 장국군(张国军)은 파룬궁 박해소조장직을 겸해하면서 여러번 파룬궁 수련생에 대한 (제 4 면으로)

이탈리아 우디 성장:우리는 폭행을 폭로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

【명혜망】 “1 억의 (파룬궁) 민중이 그들의 신앙때문에 박해를 당하고 있다. 이 미술전은 평화와 관용의 체현이고 특히 폭력에 대한 폭로이다. 다행히 우리는 비교적 자유로운 나라에서 생활하고 있고 자유롭게 수련할 수 있지만, 우리에게는 이런 폭행을 폭로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 2013년 3월 9일 오전 쩌싼런 국제미술전람회가 이탈리아 무디 성 정부 청사 내에서 열렸고 우디 성장 페트로 폰타니니는 개막식에서 이처럼 발언했다.

쩌싼런 국제미술전람회는 파룬궁을 수련하는 예술가들이 창작한 작품을 전시하는 것으로 전 세계 각지에서 순회 전시하고 있다. 이탈리아 파룬궁 수련생들은 우디 성에



우디 성 문화 전문요원 엔리코피자 (Enrico Piza, 왼쪽), 우디 성장 페트로 폰타니니 (Pietro Fontanini, 오른쪽)

서 미술전람회를 개최하여 현지 민중들이 “쩌싼런”을 수련원칙으로 하는 파룬궁과 지난 13년간 중국

에서 발생한 잔혹한 박해진상을 알 수 있게 했다. 미술전은 3월 말까지 계속될 것이다.

폰타니니 시장은 이번 미술전람회의 주요한 지지자이다. 그는 중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파룬궁 수련생들에 대한 박해정황을 들은 후 매우 놀라워했고 현지 파룬궁 수련생들이 그에게 진상을 알려준 것에 감사를 표했다. 게다가 박해를 폭로하기 위한 파룬궁 수련생들의 노력에 찬탄을 표했다.

미술전람회를 관람하는 사람들은 미술작품과 배후의 진실한 이야기에 감동받았다. 한 남자는: “이 미술작품들이 전달하는 정보는 사람을 마음속 깊은 곳까지 감동하게 하고 광명과 즐거움을 전달한다.”라고 말했다. ◇

호주 국회 앞 집회에서 중공의 집단학살을 규탄

【명혜망】 2013년 3월 20일, 오스트레일리아 시드니, 멜버른, 브리즈번, 애들레이드, 캔버라 등 여러 성시의 일부 파룬궁 수련생들은 오스트레일리아 수도 캔버라 국회청사 앞에서 집회를 열어 중공이 파룬궁 수련생의 장기를 생체적출한 최악행위를 폭로했다.

류련군(刘连军) 등 중국에서 박해받은 6명 파룬궁 수련생들은 몸소 겪은 랍치, 불법감금, 흑형과 노예로동 등 한창 중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파룬궁 수련생들에 대

한 잔혹한 박해를 증실하였다.

지금 호주를 방문하고 있는 전 캐나다 유명한 국회의원이자 인권활동가 데이비드 킬고어 (아래 그림 왼쪽) 와 시드니 대학교수 마리아·비에틀러·싱 (아래 그림 오른쪽) 은 국회대청에서 의원들과의 론단회를 마친 후 다그쳐 집회현장에 와서 성원했다. 킬고어는 불법장기이식을 제지할데 관한 방안에 대하여 국회 매우 많은 의원들의 정면지지를 얻었다고 표했다 ◇



(3 면의 계속) 랍치와 구타에 참여하고 행위가 극히 사악하고 흉악하고 잔인했다. 2001년 6월 중순 그는 장예(張掖)로 외출하여 술상에서 술을 마시다가 갑자기 급사하였는데 35살밖에 되지 않았다.

원래 금창시 영창현 법원에서 사업하던 석다영(石多英)은 2002년 9월 18일에 심판장의 신분으로 불법으로 11명 파룬궁 수련생들에게 중한 형벌을 내렸다. 얼마 지나지 않아 석다영은 랍주에 외출했을 때 오토바이에 치워 거리에서 죽었는데 죽을 때 48살이었다.

이런 사람들은 젊은 나이에 부모 처자를 버리고 간 각도에서 볼 때 그들은 이미 자신 및 가정에 미봉할 수 없는 상해를 가져다 주었다. 중국에는 자고로 선악에는 보응이 있다는 고훈이 있으며 이것은 우주의 법칙이다. 하지만 무신론 중공이 가르쳐 낸 당의 신도들은 도리어 불법을 수련하는 파룬궁 수련생들에 대해 박해를 진행하였다. 악한 일을 했으면 갚아야 하며 이것은 필연적인 규칙이다. (문/비검) ◇